

장기화되는 중동사태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1. 中東위기로 표면화되는 諸問題

지난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촉발된 중동위기는 6일 후인 8일에는 이라크에 의한 쿠웨이트 합병선언으로 진전되었고, 또 이라크가 외국인들을 방패로 삼아 국내 주요시설에 분산 수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이라크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외로 빨리 나타났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결의는 ① 쿠웨이트로부터의 이라크군의 즉시 무조건 철수 ② 쿠웨이트 정통정부의 복귀 ③ 이라크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의 석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對이라크 경제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제제재조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 한정한다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5대 강국이 일치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인정한 유엔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어도 이라크가 쉽사리 타협의 길을 선택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라크의 군사행동을 계기로 표면화된 여러가지 지역적·국제적 문제는 설사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붕괴된다 해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중동위기가 부각시킨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美蘇냉전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번의 중동분쟁처리가 냉전후의 국제질서유지방법을 가늠

할 수 있는 하나의 試金石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쿠웨이트합병을 정당화하는 이유로서 이라크측이 「제멋대로 국경선을 획정한 제국주의세력에 의한 負의 유산을 부정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이다. 제국주의세력의 행위의 비리를 인정하는 것과 이번 쿠웨이트의 이라크침공 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중동제국이 안고 있는 분쟁요인의 대부분은 제국주의적 통치유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셋째로 아랍민족들 사이에, 특히 요르단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중심으로 아랍통일의 관점에서 이라크의 행위를 지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 지지의 소리는 본질적으로는 현상황의 변혁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아랍민족들이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역내의 빈부격차확대와 팔레스타인문제의 고착화 때문에 배타되는 아랍민족의 불만을 국제사회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이번의 중동위기로 국제사회는 세계경제에서 「석유」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석유비축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을 계기로 국제원유가격은 심리적 요인도 가세하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중동사태가 군사충돌로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는 파국적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로 산유국이라고 하지만 세계경제속에서

보면 소국에 불과한 이라크를 경제봉쇄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터키나 요르단, 이집트와 같은 주변국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필리핀, 東歐제국이 받는 타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접국가 노동자의 유입과 상품서비스, 금융면에서의 거래 확대로 각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중동위기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동지역에 축적된 모순과 국제사회의 구조변화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중동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

2. 中東사태의 전망

中東사태의 전개를 전망할 때 중요한 변수는 ① 다국적군의 핵심으로서 대규모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는 美國내 여론동향 ② 對이라크 경제제재의 효과와 이에 대한 이라크의 반응 ③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이 이라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 세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현재까지 美國내 여론은 군사력사용에는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對이라크 증오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高油價에 대한 분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소한 동기로 「이라크 증오감」의 불씨가 되어 이것이 정부의 강경론을 부채질할 위험성도 있다.

한편 이라크측에도 복잡한 사정은 있다. 다국적군의 군사적 압력과 함께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오던 이라크로서 경제제재조치는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고립감도 작용하여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기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때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를 받아들여지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후세인의 국내체면을 세워주는 해결안이 되지 않는한 사태해결은 어렵다. 하여간 어떻게 묘안을 짜내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시나리오① 평화적 해결은 도모하지 않고 군사적 대결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다국적군의 주력부대인 미군의 中東배치가 10월말에 거의 완료됨으로써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라크군의 프랑스대사관난입에 분개한 프랑스가 中東지역에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美國은 원군을 얻은 셈이 되었다.

체니 美國방장관은 최근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中東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 중에는 중장비의 지상병력이 상당수 포함되어 그동안 해공군에 비해 열세이던 지상병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라크가 우세했던 군사력이 균형내지 다국적군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美國 내에서는 「무력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것이 무력행사의 억지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대통령이 경제제재의 압력이나 국제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무는」 행동으로 나오거나 인질의 처우를 잘못 할 경우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문제의 단기해결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질 위험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될 경우 美정부로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와 정면대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② 교착상태가 장기화된채 화해에의 모색이 계속되는 경우이다. 최근 베이커 美國무장관이 하원의교위원회에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국민에 대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호소하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美정부의 속셈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해결이다.

美國은 中東에의 파병에 있어서 ①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② 경제제재의 실효성의 확보 ③ 이라크 군사행동에의 견제등의 세가지 이유를 들어 소련과 中國등을 설득하고 中東제국으로부터도 기지제공의 협력을 받아냈다. 따라서 美國이 국내사정에 이끌려 독단적 행동을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결속과 보조를 파괴할 뿐 아니라 美國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美國이 내년도분 물자비축에 나서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으며, 장기전 각오로 사태해결에 임할

결의를 굳히고 있는 상황증거도 많다.

한편 이라크측으로서도 무력충돌을 피하려는 의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선전이나 비난과 같은 말의 공세를 펴고 있으나, 실제 행동면에서는 군사개입의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머지 않아 美軍의 배치가 끝나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지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있어도 장기전에서는 불리하다는 전황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강력한 정보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염전무드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③]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여急轉直下로 해결되는 경우이다. 사실 사태가 급전직하로 해결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와 원상회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이지만,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우 평화안에 이라크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방법은 있다. 이라크가 표면적으로 「아랍의 大義」를 내걸고 있으나 쿠웨이트 침공은 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최대목표는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선박통행이 불가능해진 샤프트 알 아랍수로를 대체할 석유적출루트의 확보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와르바, 부비안섬은 이라크에 가까운 페르시아만에 面하고 있어 이라크로서는 욕심이 당기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여 쿠웨이트 침공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대가로 복귀하는 자비르정권이 이라크에 대해 샤프트 알 아랍수로의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와르바, 부비안 두 섬을 대여한다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지 하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철수와 쿠웨이트에 의한 두섬의 대여를 연결시킬 경우 이라크의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1962년의 쿠바사태때 美國은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핵미사일을 철거시키기 위해 터키에 배치되어 있던 對蘇미사일을 철거했다. 美國은 터키

의 미사일철거를 소련의 미사일 철거와 별도로 약속했고 또 실행했다. 양자를 연결시킬 경우 소련의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당시의 케네디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이번 분쟁으로 이란에 대폭양보하여 이란·이라크전쟁으로 손에 넣었던 「戰果」를 모조리 토해내고 말았다. 따라서 후세인대통령으로서도 국내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얻지 않는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제재가 이라크에 압력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美蘇정상회담에서 소련이 美國에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라든지 美軍의 배치완료등도 정신적으로 무거운 重壓이 되고 있다. 따라서 후세인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중재안이 제시될 경우 이라크가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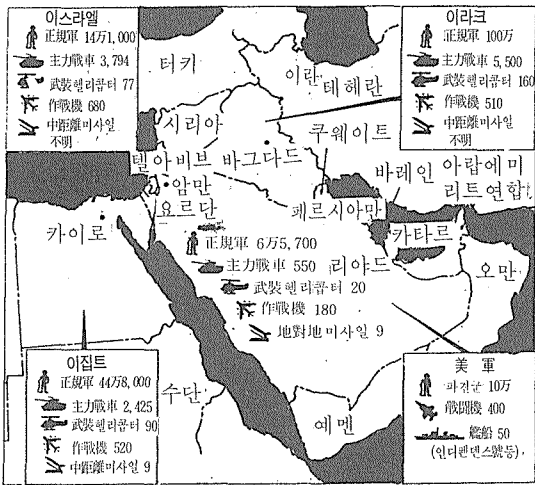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③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내에 한정시켜 볼 경우 ① 20% ② 70% ③ 10%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線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를 넘길 경우 상황은 바뀐다. 분쟁의 장기화로 선진국의 여론이 강경론으로 기울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라크가 굴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①③이 각각 40%, ②가 20%의 비율로 바뀔 것이다.

3. 군사충돌의 가능성

이라크가 공격에 나설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유전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생산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의 擴戰 시나리오를 보면 美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수호하는데 전념한후 쿠웨이트 탈환의 북쪽을 감행하게 되고, 이라크군은 사태가 불리해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반드시 공격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라크가 20만의 지상군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대의 제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라크의 공격은 주로 미사일과 공군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크군의 공격목표는 다란, 아부카이크, 주베일과 라스타누라등 동부지역의 석유센터에 집중될 것이다. 다란에는 사우디의 아람코 본사와 「사막의 방패」군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겨냥하여 사정

中東지역의 군사력



거리 3백km의 스킵B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며, 화학탄두에 의한 공격도 병행할 것이다.

아부카이크 석유정제센터는 세계최대의 카와르유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우디 전체원유생산(7백50만B/D)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아부카이크에서 紅海로 연결된 송유관(총연장 1천2백70km)도 주요파괴목표가 될 것이다. 아부카이크석유센터는 미사일공격에 취약하다. 현재 패트리오트 對空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라스타누라와 주베일은 페르시아만 최대의 석유터미널로 공중과 해상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석유제품, 액화가스 및 유제품등 위험물의 집적장으로 현재는 미군의 연료보급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스타누라는 플랜트와 석유탱크가 밀집되어 일부 시설이 연안 주아이마기지에 분산되어 있으나 이곳도 협소하다.

해상으로부터 초저공으로 날아온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에서 액조제미사일이 발사되고 소련제 전투공격기 스호이 24는 화학탄을 투하한다.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순간부터 미사일 발사까지는 약 10분간에 결판이 난다. 따라서 미군의 요격도 쉽지 않다.

주베일과 라스타누라 일대는 對空미사일로 고습도 치같은 방공망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해상유전인 사파니아와 베리유전은 공중공격으로부터 취약하

다. 또한 쿠웨이트의 단거리 미사일사정거리안에 들어 있다. 게다가 무방비상태의 육상 파이프라인망도 문제다. 사막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어진 탭라인은 절호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중립지대내에서 조업중인 아라비아석유의 카푸지 유전은 쿠웨이트국경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다.

이라크의 공격능력(특히 미사일수)을 전제로 사우디아라비아유전 파괴가능성(확률)을 계산할 경우 방위노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가 하한선이라는 계산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미사일 10기가 발사될 경우 9기까지 격추시킨다 해도 최후의 1기는 결국 목표에 맞게 된다는 얘기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생산량의 4분의1에 상당하는 2백만B/D가 타격을 받게 된다. 피해를 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증강중인 병력을 이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유전방어를 해야 한다.

확률은 낮지만 평균률이 높을 경우 손상비율은 높아져 4백만B/D의 원유생산이 중단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원유가격은 배럴당 40~50달러로 폭등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유전의 취약성은 2차회수기술, 가스분리장치, 고압가스사이클과 밀집된 탱크류등이 지적되고 있다.

4. 향후 유가전망

원유가격처럼 불확실한 것은 없다. 국제석유시장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변수가 서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호간은 「만약 유가전망이 정확히 맞으리라는 가정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그 정책은 출발에서부터 틀린 정책」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원유가격은 수요 공급등의 구조요소와 中東정치변화등 충격요소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세계석유역사 30년을 통해 볼 때 원유가격진로에 결정적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충격요소였다. 제1차 석유위기는 아랍·이스라엘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제2차 석유위기는 이란회교혁명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제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으로 인한 새로운 中東사태 때문에 제3의 석유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향후의 원유가격은 구조요소에 의한 변동보다는 충격요소에 의한 변동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中東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나, 군사충돌 없이 이라크군과 美軍등의 대치상태가 계속할 가능성이 60~70%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치상태가 계속된다 해도 앞으로 겨울철 성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의 7개유종 평균바스켓가격은 배럴당 25~30달러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40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現狀장기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인질문제가 있어 신경전이 계속되는 케이스다. 겨울철 한파등의 정세변화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배럴당 35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

한편 이라크군의 철수와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15~20%로 낮다.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거나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붕괴될 경우 일시적으로 배럴당 20달러 전후까지 급락한 후에 페르시아만의 정치불안 때문에 다시 20~25달러선으로 상승할 것이다.

군사충돌의 경우는 유전시설이 파괴되면 일시적으로 배럴당 35~4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곧 20달러선으로 떨어지며, 일부유전시설등에 피해가 날 경우 40~45달러까지 상승했다가 그후 복구되기까지는 35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최악의 사태는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충돌하여 아랍산유국들이 여기에 휘말리는 제5차 中東전쟁의 케이스로 유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현재 원유공급면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공수로 국제석유시장에서는 현재 4백만B/D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등의 증산으로 3백만~3백50만B/D의 공급이 늘어났으나 성수기인 4/4분기에는 OPEC 자체 수요가 3/4분기보다 2백50만B/D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계석유수급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5. 맺는말

고유가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모형 분석에 의하면 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로 상승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은 원유가 20달러때에 비해서 2.1% 포인트 감소하여 6.4%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달러로 상승할 때에는 4.7% 성장하며, 40달러일 때에는 1.5% 성장감소가 예상된다. 도매물가상승률은 각각 7.2%, 10.7%, 17.4%가 예상된다.

앞으로 고유가 대응방안의 초점은 유가상승의 경제위기를 경쟁기반의 확충을 위한 전회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는데에 두어져야 한다.

첫째, 거시정책에 있어서 고도성장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원유가 상승에 의한 경제성장의 감소를 우리는 현재 한국경제·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근검절약정신의 정착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中東의존도를 최소화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中東지역의 정세는 향후 더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시달릴 것으로 이 지역의 에너지의존을 최소화함이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효율개선을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 그리고 제도력의 발휘를 필요로 한다. 자율적 에너지절약의 한계는 지난 5년간의 경험에서, 특히 최근의 석유와 전력소비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90년대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이 본궤도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 에너지효율규제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② 경제 각부문의 정책이 에너지효율개선 측면에서 유기성을 확보토록 해야 하고, ③ 에너지공급자 주도의 에너지절약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